

대승경전을 통해 본 재가불자 신행론

고영섭
동국대 교수

- I. 문제와 구상
- II. 대승불교에서 출가와 재가의 지위
- III. 대승불교의 신행 이론과 신행 체계
- IV. 화엄의 수행 구조와 십바라밀 실천
- V. 대승경전에서 재가자의 신행 방향과 신행 내용
- VI. 정리와 맺음

요약문



이 논문은 대승경전에 나타난 재가불자들의 신행의 이론과 체계 및 방향과 내용을 살펴본 글이다. 붓다는 출가자와 재가자를 상호 보완적 존재이자 상호 조화적 존재로 보았다. 초기 불교가 수행의 목표를 자각(自覺)에 둔 반면, 대승불교는 수행의 방향을 교화(覺他)와 각행(覺行) 및 이 둘의 원만히 갖추[窮滿]에 두었다. 그리하여 출가와 재가는 ‘자각’과 ‘각타’와 ‘각행공만’까지 아우르는 상호 의존의 존재이자 상호 존중의 존재로 자리하였다.

대승불교는 재가중심의 불교로서 출발하였다. 대승불교의 이상적 존재인 보살은 ‘집’ 즉 ‘가’(家)의 출재(出在) 여부에 구애받지 않았다. 초기불교에서는 재가자가 ‘집에 머무르는 것’[在家]은 곧 애욕의 결박을 의미했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재가보살은 이러한 ‘집의 장애’에 대해 잘 알아야한다고 역설하였다. 이것은 집을 떠나라는 것이기보다는 집에 머무를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환란과 장애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대승 경론에서는 집의 장애를 잘 아는 일은 재가보살의 주요 실천 덕목 중 하나로서 강조되어 왔다.

대승경전을 통해 본 재가자의 신행론은 삼귀의, 오계, 팔제

계, 십선계를 지키며 사는 것이다. 재가자는 삼귀의, 오계, 팔재계, 십선계를 지키며 살면서 출가자를 외호하기만 하지 않았다. 이들 계 중에서 십선계는 출가보살과 재가보살이 함께 실천해야 할 덕목이다. 재가보살은 10선계를 닦아서 계바라밀로부터 나아가는 수행자이다. 그는 십선계가 대승불교도가 행하는 육바라밀 중 계바라밀의 내용으로 새롭게 자리매김되었다. 그 결과 계바라밀은 보살이 받아 지녀야 할 계로서 십지 보살위 중에서 초지인 환희지에서 발심을 하고 올바른 신심을 확립한 뒤, 제이지인 이구지에서 계를 받고 수행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승불교는 재가불교를 상징하는 유마거사의 불이(不二)법문과 승만부인의 10대수와 3대원을 아우르는 일대원(一大願)을 통해 일승의 수승(殊勝)함과 중생이 지닌 여래장(一乘)의 본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승의 의미와 가치를 잘 드러내고 있는 이들 경전의 두 주인공들은 재가불자의 신행 이론과 신행 체계를 십선계로부터 이어지는 불이행(不二行)과 일원행(一願行)의 구조와 체계로 잘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10신위에서 10주-10행-10회향-10지로 이어지는 수행위에 대응하는 화엄의 10바라밀행은 출가보살의 수행법일 뿐만 아니라 재가보살의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출가, 재가, 팔재계, 십선계, 유마, 불이행, 승만, 일원행

I. 문제와 구상

붓다는 출가와 재가에 대해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출가자와 재가자는 모두 불자 즉 불제자일 뿐 출가자는 수행자이고 재가자는 외호자라고만 보지 않았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관계는 수직적 위계의 차별이 아니라 수평적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붓다는 둘 사이의 차이를 인식시킴으로써 출가와 재가는 상호 보완적 존재이자 상호 조화적 존재임을 환기시켰다. 초기불교가 수행의 목표를 자각(自覺)둔 반면 대승불교는 수행의 방향을 교화(覺他)와 각행(覺行) 및 이 둘의 원만히 갖추[窮滿]에 두었다. 그리하여 출가와 재가는 ‘자각’과 ‘각타’와 ‘각행공만’까지 아우르는 상호 의존의 존재이자 상호 존중의 존재로 자리하였다.

대승불교는 재가중심의 불교로서 출발하였다. 대승불교의 이상적 존재인 보살은 ‘집’ 즉 ‘가’(家)의 출재(出在) 여부에 구애받지 않았다. 이것은 초기불교에서 ‘집’은 애욕(愛慾)의 과생물이며, 애욕이라는 요인에서 생겨나는 모든 환란과 장애가 발생하는 곳이라는 설과는 다르다. 초기불교에서는 재가자가 ‘집에 머무르는 것’[在家]은 곧 애욕의 결박을 의미했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재가보살은 이러한 ‘집의 장애’에 대해 잘 알아야한다고 역설하였다. 이것은 집을 떠나라는 것이기보다는 집에 머무를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환란과 장애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대승 경론에서는

집의 장애를 잘 아는 일은 재가보살의 주요 실천 덕목 중 하나로서 강조되어 왔다.

대승경전으로 분류되는 『육가라월문보살행경』(郁迦羅越問菩薩行經) 「거예품」(居濊品)에서는 “거가보살(居家菩薩) 즉 재가보살은 마땅히 재가의 오예(汚穢)한 일을 구별해 알아야 한다”¹⁾ 고 역설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재가의 장애에 대해 33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이 경전의 이역본인 『대보적경』 「육가장자회」에서는 “재가보살은 선지가(善智家)라고 한다”²⁾ 며 그는 “집에 있는 허물을 잘 알고 집에 안주하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다. 이 『육가장자경』의 영향을 받은 논서로서 『화엄경』 「십지품」 중 초지와 제2지의 경문을 주석한 용수의 『십주비바사론』 「지가과환품」(知家過患品)에도 ‘재가의 장애’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³⁾

그렇다면 ‘집’ 즉 ‘재가’에는 장애만 있는 것일까? 재가적 삶은 출가적 삶보다 하열한 것이기만 한 것일까? 이러한 관점은 출가 중심의 초기불교적 관점에서 기술된 것은 아닐까? 종래에 재가보살 또는 재가적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재가자의 위상과 신행생활⁴⁾, 재가자의 해탈 문제⁵⁾, 출가자와 재가자의 위상

1) 『郁迦羅越問菩薩行經』 「居濊品」(『大正藏』 제12책, p.25상).

2) 『大寶積經』 권82, 「郁迦長者會」(『大正藏』 제11책, p.472중).

3) 『十住大毘婆沙論』 권7, 「知家過患品」(『大正藏』 제26책, pp.57중~59상).

4) 조준호, 「초기경전에 나타난 재가자의 위상과 신행생활」,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불교평론》 제14호, 2003년 3월.

5) 허우성, 「재가자의 해탈은 어디에 있는가?」,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불교평론》 제27호, 2006년 9월.

문제⁶⁾, 출가보살과 재가보살의 계⁷⁾, 재가불자의 전법과 역할⁸⁾, 재가불자의 신행과 위상⁹⁾ 등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 그렇다면 재가자는 삼귀의, 오계, 팔재계, 십선계를 지키며 살면서 출가자를 외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출가보살과 재가보살이 함께 행하는[共行] 실천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다. 이 글에서 논자는 대승경전에 나타난 재가불자의 신행 이론을 중심으로 재가불자의 신행 방향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II. 대승불교에서 출가와 재가의 지위

대승불교에서 출가와 재가의 차이는 신행 방향과 실천 내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출가와 재가, 출가보살과 재가보살의 정의와 역할 등에 대해 구명해 보도록 하자. 불교에서 출가와 재가는 ‘지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를 뿐이다. 출가자가 집을 떠

6) 박경준, 「재가자는 출가자에 비해 하열한가」,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불교평론》 제27호, 2006년 9월.

7) 문을식, 「『십주비바사론』에 나타난 재가보살과 출가보살의 계 연구」, 《인도철학》 제25집, 인도철학회, 2008.8.

8) 광도영, 「초기불교 재가불자의 전법과 역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논문, 2011.

9) 박소령, 「대승불교 재가불자의 신행과 위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논문, 2014년.

나서 ‘수행’에 ‘교화’에 치중하는 반면 재가자는 집에 머물며 ‘생업’과 ‘수행’에 집중한다.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가 수행을 하지만 출가자에게는 교화가 추가되고 재가자에게는 생업이 추가된다. 이 때문에 출가자와 재가자는 발심과 수행을 통해 진리의 세계를 만나고 교화와 생업을 통해 방편의 세계를 함께 한다.

초기불교나 부파불교의 재가자는 ‘친승비속’(親僧非俗) 즉 재가자가 아니라 출가자에 가까운 존재로 비취지고 있다. 즉 재가자는 출가자를 갈망하며 재가자를 벗어나려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반면 대승불교는 ‘승속양행’(僧俗兩行) 즉 출가자와 재가자의 삶을 겸행하고, ‘승속자재’(僧俗自在) 즉 출가자와 재가자에 자재하며, ‘진속불이’(眞俗不二) 즉 출가자와 재가자는 하나다는 입장으로 제시된다. 이렇게 보면 대승 이전에는 ‘숲’과 ‘집’, 승단과 속세, 즉 수행과 교화로 구분해 보았지만, 대승 이후에는 숲과 집, 승과 속, 즉 출가와 재가를 하나로 보려했다.

출가(*pravrajita, pabbajja*)¹⁰⁾는 ‘번뇌에 얽매인 재가의 생활을 떠나 수행생활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출가는 거저 집을 떠난다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출가는 세속적 생활 방법과 명예와 이익, 욕망과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때문에 밖으로 삭발염의(削髮染依) 즉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고 수행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더라도, 안으로 세속적 번뇌와 욕망을 제

10) 불교의 七衆은 比丘, 比丘尼, 式叉摩那, 沙彌, 沙彌尼의 出家 5종과 우바새와 우바이를 더하여 七衆의 일곱 구성원이다. 出家에는 가족과의 생활에서 결별하는 肉親出家, 일체의 육체적 욕망으로부터 떠남을 의미하는 五蘊出家, 일체의 번뇌와 업보 및 무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法界出家의 3가지가 있다.

어하지 못한다면 참된 출가라고 할 수 없다. 출가의 본래적 의미는 상구보리(上求菩提, 歸一心源) 즉 위로는 깨침을 궁구하고 하화중생(下化衆生, 饒益衆生) 즉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율장에서 ‘출가자’는 사미와 사미니의 10계를 받은 이이며, 사미계를 받은 지 3년 이상된 만 20세 이상의 젊은이와 70세 미만의 이로서 일을 감당할 만하고, 몸이 튼튼하여 병이 없고 모든 죄과가 없으며 사미계를 받은 이로서 ‘구족계’(upasampadā)를 받고 비구와 비구니가 된 사람이다. 부파교단의 성문승가에서도 출가자는 구족계를 받아 지닌 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그가 구족계를 지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출가자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데 대승경전에서는 대승의 재가보살이 머무르는 보살집단과 비구집단을 구별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생활집단을 이루며 수행을 하였다.

이들 출가보살은 성문승가의 구족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온전한 출가자라고 할 수는 없다. 이들 대승 초기의 출가보살은 출가한 보살일 뿐 온전한 출가자로서의 보살은 아니었다.¹¹⁾ 하지만 점차 후대로 내려가면 출가보살은 구족계를 받아 지닌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불타발타라가 번역(418~420)한 『대방광불화엄경』 권6에는 출가보살의 출가순서가 자세히 나와 있다. 열두 단계로 거행되는 순서는 부파교단의 출가 작법과 차이가 없다.

① 가정을 버림 ② 승방에 이룸 ③ 스승에게 나아감 ④ 출가를 간청 ⑤ 백의(白衣)의 탈의 ⑥ 삭발염의 ⑦ 출가의식을 행함 ⑧ 삼보에

11) 彌勒菩薩說, 玄奘譯, 『瑜伽師地論』(『大正藏』 제30책, p.511상).

귀의 ⑨ 정계(淨戒)의 수지 ⑩ 도금(道禁)의 수행 ⑪ 화상을 청함 ⑫ 구족계를 받아지님.”¹²⁾

이 경전에는 출가보살이 화상과 아사리를 청해서 구족계를 받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 반면 『십주비바사론』에는 화상과 아사리의 존재가 확인은 되지만 출가보살이 그들을 청해서 구족계를 받아 지닌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출가보살은 성문승가와 같은 구족계를 받아 지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¹³⁾ 하지만 점차 출가보살도 성문승가와 같은 구족계를 받아 지니게 되면서 대승불교의 주축이 출가 쪽으로 옮겨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재가자는 ‘집에 사는 이’(grhastha), ‘집을 소유하고 사는 이’(grhin), ‘집을 돌보는 이’(agārika, āgārika)를 뜻한다. 그는 세속적인 가정을 떠나지 않고 붓다의 법을 믿고 따르는 신행자이다. 재가남자는 우파사카(Upāsakā) 즉 청신사 혹은 선남자(kulaputra)로 호칭되었으며, 재가여자는 우파시카(Upāsika) 즉 청신녀 또는 선여인(kuladuhitr)로 호명되었다. 재가불자는 “우바새란 집에 머물며 청정한 삶을 살며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삼보에 귀의하여 우바새가 되겠습니다. 이에 저를 증명하고 알아 주십시오”¹⁴⁾ 라고 다짐한 사람이다.

12) 佛馱跋陀羅 譯, 『大方廣佛華嚴經』 권6(『大正藏』 제9책, pp.430하~431상).

13) 문을식, 앞의 글, 앞의 책, pp.76~77.

14) 『雜阿含經』 제33권(『大正藏』 제2책, p.100). “優婆塞者, 在家淨住, 乃至盡壽, 歸依三寶, 爲優婆塞, 證知我.”

당시 불교를 믿는 재가자는 출신성분이 농촌보다는 도시에 거주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경전에서 거론되는 재가자의 유형은 왕과 왕족, 대신과 귀족, 지방 관리, 촌장, 장군, 바라문, 사제, 교리학자, 수학자, 의사, 지주, 거상(巨商), 대상(隊商), 고리대금업자, 고급 유녀(遊女) 등과 같이 다양했다. 이들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다. 한편 이들 중에는 금속 세공업자, 이발사, 농부, 꼬끼리 조련사, 거지, 범죄인 등과 같이 하층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 중 무역업에 종사하는 거상과 대상과 같은 상인계층들은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불교 교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들은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만과 심리적인 안녕을 갈망하였다. 이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승한 청신사와 청신녀로서 불교의 신행과 증득에 대해 남다른 관심이 있었다. 이 때문에 대승불교가 일어나자 이들은 불탑신앙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었다.

Ⅲ. 대승불교의 신행 이론과 신행 체계

대승불교가 흥기하는 1세기 무렵부터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불렀다. 보살이란 존재의 등장은 종래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마이로 구성되던 사부대중의 개념을 변화시켰다. 즉 보살은 자리(自利)만

을 탐구하던 부파불교의 특수 계층인 출가자 중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반 대중과 교락을 같이 하려는 대승사상에 따라 출가와 재가의 구분 없이 우바새와 우바이도 똑같은 수행자이므로 ‘보살’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불자 즉 불교도가 된다는 것은 먼저 1) 불법승(佛法僧)의 삼보(三寶)에 귀의하고 2) 살도음망주(殺盜淫妄酒)의 오계(五戒)를 수지할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불자는 먼저 삼보에 귀의해야 하고 나아가 오계를 수지해야 한다. 나아가 3) 팔재계(八齋戒)를 받아 지니고 4) 십선계(十善戒)를 받아 지녀야 한다. 대승불교의 초기에는 이들 재가자 즉 재가보살은 대승경전이 설한 십선계(十善戒)를 지켜야 했다.

삼귀의에서 ‘귀의불’은 32상을 갖춘 붓다에게 귀의하는 것이다. ‘귀의법’이란 붓다의 법 및 설법자를 공경하는 것이다. ‘귀의승’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및 범부와 성문승을 보게 되면 모두 다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빨리 일어나 받들어 맞이하며 좋은 말을 하면서 그의 오른쪽을 돌면서 ‘내가 무상정등각을 깨달았을 때는 성문의 공덕과 이익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겠다’고 해야 하며, 비록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을 낸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그 안에 머물지 않는다.¹⁵⁾ 그런데 재가보살의 귀의승은 그 대상이 성문승이 아니다.

“재가보살은 네 가지 법을 성취하고 승가에 귀의하는 것이다. 만일 아직 성문승(聲聞乘)에 결정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에게는 권하여

15) 『大寶積經』 「郁迦長者會」(『大正藏』 제11책, p.472하).

일체지(一切智)의 마음을 내도록 하고, 재물로써 거두어 주기도 하고, 법으로써 거두어 주기도 하며, 불퇴전보살(不退轉菩薩)에게 의지하며 성문승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성문의 덕을 구하지 않으면서 마음으로도 그 안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¹⁶⁾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재가보살의 귀의 대상이 성문승이 아니라 불퇴전보살이며, 마음으로도 성문승에 머무르지 않고 보살승에 보리심을 낸다는 지점이다. 더욱이 아직 성문승에 결정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에게는 일체지의 마음을 내도록 하고, 재물로써 그의 마음을 거두어주고 다시 보살승의 법을 설하여 그의 마음을 거두어 주기도 한다는 지점이다. 이처럼 재가보살은 일체지의 마음을 지닌 불퇴전보살 즉 진리 앞에서 물러나지 않는 보살에게 의지함으로써 마땅히 스스로 나아가야 할 길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만일 성문인들 중에서 아직 법위(法位)에 들어가지 않은 자에게는 무상보리심(無上菩提心)을 내도록 하고, 부처님의 십력(十力)을 얻도록 한다. 먼저 재시(財施)로써 거두어주고, 뒤에는 법시(法施)로써 거두어 준다. 깊은 사과(四果)의 승가와 분별하지 않는 귀한 무리는 성문의 공덕을 구하지만 해탈은 증득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것을 귀의승(歸依僧)이라고 한다. (...) 먼저 재물의 보시로써 거둬 들인다고 하는 것은 의복, 음식, 와구, 의약 등 구하는 물건으로써 거두어준다는 것이다. 출가자에게는 의복, 음식, 침구, 와구, 의약, 섞인 향[雜香], 바르는 향[塗香]으로써 거두어 주고, 재가자에게는 인연으로 거두어 주어 친근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서 말하는 것을 믿고

16) 위의 경, 위의 책, p.473상).

받은 뒤에 법시로써 무상보리심의 결과를 일어나게 한다.”¹⁷⁾

재가보살은 성문승에게 귀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재시와 법시를 설하여 보살승으로 인도하여 대승의 길로 가게 한다¹⁸⁾는 것이다. 즉 재가보살은 출가자에게는 의복, 음식, 와구, 의약 등의 물건으로써 거두어주지만, 재가자에게는 인연으로 거두어 주어 친근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서 말하는 것을 믿고 받은 뒤에 법시로써 무상보리심의 결과를 일어나게 한다.

그런데 불살생, 불망어,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의 오계에서 『아함경』에서의 오계와 대승경전에서의 오계는 그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특히 불음주계의 경우가 그러하다. 대승불교의 행법에서 근간이 되는 것은 바라밀행이다. 그중에서도 재가보살에게 보시바라밀은 중요시된다. 보시바라밀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베풀어 주고, 그것을 구하는 이에게도 만족을 주는 것이다.

“만일 술을 보시하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지금 이것은 보시바라밀을 행할 때이므로 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주었다. 그리고 뒤에는 방편으로 가르쳐서 술을 여의도록 할 것이며… 왜냐하면 보시바라밀의 법은 모두 사람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재가보살이 술을 보시하는 것은 죄가 없다.”¹⁹⁾

17) 龍樹, 『十住毘婆沙論』 권7(『대정장』 제26책, p.55상).

18) 문을식, 앞의 글, 앞의 책, p.79.

19) 龍樹, 앞의 글, 앞의 책, p.56하.

그런데 성문승가의 오계에서는 자신의 음주만을 금하고 있는 반면 대승불교의 오계에서는 ‘불고주계’(不酤酒)²⁰⁾ 규정을 통해 술을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육가장자회」에서는 “만일에 재가보살이 이 오계를 수지하는 공덕으로써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에 회향하면 오계를 잘 지키는 것이다”²¹⁾ 고 하여 대승을 구현하게 되면 계는 자연스럽게 지켜진다고 보기 때문에 보시바라밀을 오계의 수지보다 우선하고 있다.²²⁾

『대지도론』에서는 재가보살을 오계의 수지와 관련해서 다섯 부류로 해명하고 있다.

“오계를 다섯 종류로 나누고 여기에 따라 우바새도 다섯 종류로 나눈다. 첫째는 일분행(一分行) 우바새, 둘째는 소분행(小分行) 우바새, 셋째는 다분행(多分行) 우바새, 넷째는 만행(滿行) 우바새, 다섯째는 단음(斷淫) 우바새이다. 첫째로 일분행자는 오계 가운데 하나의 계만 받고 나머지 사계는 받아 지닐 수 없는 이, 둘째로 소분행자는 오계 가운데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계만을 받는 이, 셋째로 다분행자는 4가지 계를 받는 자, 넷째로 만행자는 오계를 다 받는 자, 다섯째로 단음자는 오계를 받은 뒤에 스승 앞에서 다시 나는 자신의 부인과도 다시는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한다고 하는 것이다.”²³⁾

20) 여기서 ‘酤’는 전날 닭가 다음날 새벽닭이 울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빚은 술[鷄鳴酒]을 가리킨다.

21) 『大寶積經』, 『郁迦長者會』(『大正藏』 제11책, p.473하).

22) 문을식, 앞의 글, 앞의 책, p.82.

23) 龍樹, 『大智度論』(『대정장』 제25책, p. 158하).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다섯째의 단음 우바새이다. 흔히 오계 중 불사음계는 사된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不邪淫]는 것일 뿐 부부 사이의 정상적인 성관계는 인정한다. 그런데 단음 우바새는 부부 사이의 정상적인 성관계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십주비바사론』에는 “반주삼매를 닦기를 바란다면’ 음욕을 완전히 끊고, 자신의 부인에게도 애착을 내지 않으며, 늘 출가를 원한다.”²⁴⁾ 고 하였다. 이처럼 재가보살 중에는 일본행에서 소분행과 다분행과 만행을 넘어 단음의 수지까지 실천한 이들도 있었다.²⁵⁾ 이것은 재가보살이면서도 출가보살적인 성격이 강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팔재계(八齋戒)는 붓다 당시부터 거행되던 재계이다. 평소에 생업 등으로 수행에 전념할 수 없는 재가자들을 위하여 포살일 만이라도 수행자의 청정한 삶을 본받아 실천함으로써 하루 빨리 깨침의 세계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장된 계목이다. 팔관재계(八關齋戒)라고도 한다. 팔관재계에서 ‘관’은 ‘현관[關]을 말하며 ‘재’는 ‘재계(齋戒)하다’ 혹은 ‘삼가하다’ 또는 ‘부정(不淨)을 피하다’는 뜻을 지닌 우포사다(Uposadha)를 번역한 것이다.

여기서 ‘관재’는 ‘현관(關)을 닫아 막는다[齋]’는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잘못할 수 있는 여덟 가지를 금계하여 닫아 지킨다는 뜻이다. 팔재계는 재가불자들이 매월 육재일(8, 13, 15, 23, 29, 30일)의 포살일에 받아 지니는 계이다. 재일이란 매월 이 날 및 세 가지 꺼리는 것[三隄]을 지키는 것이다. 즉 삼기에서 15일 동안이 1기이고 동

24) 龍樹, 『十住毘婆沙論』 권7(『대정장』 제26책, p.87상).

25) 마하트마 간디는 재가보살의 斷淫 수지처럼 오십이 넘어서면서 부부의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한다.

지부터 이후 45일 동안은 나쁜 날이기 때문에 많은 귀신들이 엄습하며 제멋대로 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수호하기 위해 한 낮이 지나면 먹지 않아야 한다²⁶⁾ 고 한다.

재가보살은 육재일의 각 하루 동안에 살도음망주(殺盜淫妄酒)를 금하는 다섯 가지 계와 ‘꽃다발을 쓰거나 향수를 바르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놀이를 하거나, 또는 그런 곳에 가서 듣고 보지를 말 것’[不作唱伎樂, 故住觀聽, 不着香勳衣], ‘높고 넓은 침상에 눕고 앉지 말 것’[不坐廣大床], ‘때 아니거든 먹지 말 것’[不過中食]의 세 가지 계를 보탠 팔재계를 지켜야 한다. 특히 ‘단음일’(斷淫洗) 즉 마음껏 음탕하게 놀지 않는다는 것과 ‘불과중식’(不過中食) 즉 정오를 지나서 먹지 않는다는 것은 주목되는 조목이다.

“성인은 죽임, 흠침, 음행, 거짓말, 음주, 꽃과 향, 영악과 노래와 춤 등, 높은 평상과 정오가 지나서 먹는 것 등을 버리고 여의므로 나 또한 그렇게 하겠다. 이러한 복과 인연으로 모두 함께 성불을 하겠노라.”²⁷⁾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재가보살이라도 포살일에는 출가자의 8계목을 받아 지니고 출가수행자인 사문과 같은 수행을 함으로써 출가수행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재가자들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고 한편으

26) 龍樹, 앞의 글, 앞의 책, p.60상.

27) 龍樹, 앞의 글, 앞의 책, p.60중.

로는 출가자들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과 신뢰감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⁸⁾

칭정한 비구들과 가까이 지내고, 더 나아가서 비록 계를 어기고 사된 행위를 일삼는 비구라고 하더라도 화를 내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가없이 여기며 도리어 그에게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²⁹⁾ 이것은 부파교단의 성문의 계는 섭율의계에 만 한정되어 있지만, 대승보살의 계는 보살정신을 구현하는 삼취정계에 근거하여 율의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시 섭선법계와 섭중생계 즉 요익중생계가 더해져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³⁰⁾ 십선계(十善戒)는 재가자들이 살생, 도둑질,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탐욕, 분노, 사견을 멀리 여의게 하는 계이다. 붓다 당시부터 재가자의 실천덕목으로 설해졌던 십선계는 이후 대승불교도가 행하는 육바라밀 중 계바라밀의 내용으로 새롭게 자리매김 되었다. 계바라밀은 보살이 받아 지녀야 할 계로서 십지 보살위에서 초지인 환희지에서 발심을 하고 올바른 신심을 확립하고 나서, 이구지에서 계를 받고 수행을 하게 된다. 이때 보살이 실천해야 할 5계, 8재계, 10선도 중 5계와 8재계는 계바라밀에서 제외된 반면 10선도는 포함되어 있다.

재가보살이 재가의 장애를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십주비바사론』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28) 문율식, 앞의 글, 앞의 책, pp.85~86.

29) 龍樹, 『十住毘婆沙論』 권7(『대정장』 제26책, p.60중).

30) 문율식, 앞의 글, 앞의 책, p.85.

“마땅히 집이란 과실과 죄악임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과실과 죄악임을 알게 되면 더러는 집을 버리고 도에 들기도 할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을 교화하여 집이란 과실임을 알게 하여 집을 떠나 도에 들게 하기 때문이다.”³¹⁾

하지만 재가자는 집을 떠나 출가하지 않는 한 재가에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재가자를 위한 신행법을 제시해야만 한다. 초기불교 이래 제시된 주요한 신행법에는 사불괴정(四不壞淨)³²⁾, 육수념법(六隨念法)³³⁾, 오덕목(五德目)³⁴⁾, 사청정행(四淸

31) 龍樹, 앞의 책, p.57중).

32) 『長阿含經』 권2, 『遊行經』(『대정장』 제1책, p.13중). 초기불교에서 재가자의 신행법으로 제시된 것은 三歸依와 五戒受持이다. 이러한 믿음의 신행이 한 차원 심화되어 제시된 것이 四不壞淨 즉 네 가지 무너지지 않는 청정한 신행이다. 사불괴정은 삼보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청정한 신행인 佛불괴정, 法불괴정, 僧불괴정과 계를 절대 확실한 것으로 믿는 청정한 신행인 聖戒불괴정이다.

33) 『雜阿含經』 권20, 50경(『대정장』 제2책, pp.143중~144상). 六隨念法은 이 사불괴정의 체계가 수행과 결합되어 심화되고 정비된 것이다. 육수념법은 佛法僧 ‘三寶’와 戒示天 즉 戒論, 施論, 生天論 ‘三論’의 여섯 가지를 넘하는 수행법이다. 육수념법은 진여법을 얻게 하는 것이자 열반으로 향하는 수행법이며, 사불괴정이 성현의 과인 수다원의 성취와 관계되어 설해진 반면, 이것은 그보다 심화되고 체계를 갖춘 실천덕목이다. 이 때문에 초기불교에서 육수념법은 선정과 지혜를 이루고 열반에 나아가는데 재가자에게 가장 알맞고 심도있게 설해진 법이라고 할 수 있다.

34) 五德目は 재가자가 믿음으로부터 차제적으로 지혜의 열반에 나아갈 때에 갖추어야 할 信·戒·法·多聞·慧의 덕목을 가리킨다.

淨行)³⁵⁾, 사은(四恩, 四攝法)³⁶⁾, 사선(四禪)³⁷⁾ 사념처(四念處)³⁸⁾, 사무량심(四無量心), 십념법(十念法)³⁹⁾ 등이 있다. 붓다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 불자들을 위하여 수다원과-사다함과-아나함과-아라한과를 시설하였다. 그는 이들 현실생활을 위한 노동 생산과 자기 수행을 병행하여야 하는 재가자들을 위해 이러한 신행법들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들 재가자들 중에서 수행을 성취하여 일정한 지위에 도달한 이들이 있었다. 경전에서는 재가자들은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를 성취하였다고 전한다. 반면 아라한과는 출가자들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대표적인 장자로서 아나함과(不還果)를 성취한 범마 장자를 비롯하여 각카타, 니카타, 카알리카, 카알라카타, 리사바사로, 우바사로, 리색타 등이 오하분결(五下分結) 즉 중생을 하계인 욕계에 얽어매고 해탈하지 못하게 하는 5종의 번뇌(貪結, 眞結, 身見結, 戒取見結, 疑結)를 끊고 아나함이 되어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났다고 한다.

35) 四淸淨行은 인간세계에 태어나는 네 가지 청정행 즉 身·口·의·命의 청정행이다.

36) 四恩法은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네 가지 은혜 즉 惠施·仁愛·利人·等利의 은혜이다.

37) 四禪은 마음이 해탈하고 지혜로 해탈하는 수행으로서 四靜慮라고도 하며 초선인 有尋有伺定, 이선인 無尋有伺定, 삼선인 無尋無伺定, 사선인 捨念法事定이다.

38) 四念處는 소승의 수행자가 三賢位에 서서 五停心觀 다음에 닦는 身念處·受念處·心念處·法念處의 관법이다.

39) 十念法은 사부대중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설해진 念佛·念法·念衆·念戒·念時·念天·念休息·念安般·念身·念死 수행법을 가리킨다.

붓다는 『증일아함경』에서 우바새들 가운데 지혜 제일인 질다 장자, 신묘한 덕이 뛰어난 견제아람, 외도를 항복받는 굴다 장자, 깊은 법을 잘 설명하는 우과굴 장자, 늘 앉아 참선하는 하타카 알라바카, 이론으로 이길 수 없는 비구(毘俱?) 바라문, 계송을 잘 짓는 우팔리 장자 등을 거명하고 있다. 우바새 뿐만 아니라 우바이의 경우도 성인에 올랐다. 처음으로 도를 깨달은 난타바라, 지혜 제일의 구수다라, 언제나 좌선하기를 좋아하는 수비야, 설법을 잘 하는 앙갈사, 외도를 항복받는 바수타, 여러 가지로 의론하는 바라타, 항상 욕됨을 참는 무우(無憂),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시리(尸利) 부인 등의 우바이를 언급하고 있다. 이들 재가자로서 성위(聖位)에 오른 사람들의 위덕은 출가자의 그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⁴⁰⁾

그리고 이들 우바새 즉 장자들은 재가거사들을 대표하면서 불교 신행의 주역들로 자리를 잡았다. 물론 우바이 즉 부인들⁴¹⁾도 재가 부인들을 대표하면서 불교 신행의 또 다른 축으로 자리를 하였다. 이들은 붓다 당시부터 재가자의 실천덕목으로 설해졌던 십선계를 실천하였다. 이후 십선계가 대승불교도가 행하는 육바라밀 중 계바라밀의 내용으로 새롭게 자리매김 되자 계바라밀은 보살이 받아 지녀야 할 계로서 십지 보살위에서 초지인 환희지에서 발심을 하고 올바른 신심을 확립한 뒤, 이구지에서 계를 받고 수행을 하는 것이

40) 박경준, 앞의 글, 앞의 책.

41) 一然, 「王曆」, 『三國遺事』 제1권. ‘夫人’의 칭호는 붓다의 어머니인 ‘摩耶’부인을 필두로 하여 ‘勝鬘’부인이 대표적이며 이후 동아시아 신라에서도 법흥왕비인 ‘巴刀부인’, 진흥왕비인 ‘思刀부인’, 진지왕비인 ‘色刀부인’, 진평왕의 부인인 갈문왕의 딸인 ‘麻耶부인’, 후비인 ‘僧滿부인’, 선덕여왕인 ‘德曼부인’, 진덕여왕인 ‘勝曼부인’ 등이 대표적이다.

다.

그 결과 보살이 실천해야 할 5계, 8재계, 10선도 중에서 5계와 8재계는 계바라밀에서 제외된 반면 10선도는 포함되어 있었다. 보시바라밀에 이어 육바라밀의 두 번째 덕목인 계바라밀은 이후 육바라밀에서 십바라밀로 확장되는 화엄의 수행구조와도 긴밀하게 맞물려 전개되었다. 즉 보시바라밀과 지계바라밀 및 인육바라밀과 정진바라밀은 계학으로 수렴되었고, 선정바라밀은 정학으로 수렴되었으며, 반야바라밀은 혜학으로 수렴되었다. 따라서 삼학과 육바라밀은 다시 원, 력, 방편, 지의 네 바라밀행을 아우르는 십바라밀과 보살의 십지 수행 등으로 확장되어 화엄의 수행구조와 긴밀하게 상응하고 있다.

IV. 화엄의 수행 구조와 십바라밀 실천

대승불교의 총화로 불리는 화엄은 초기불교와 부파불교 이래 대승불교의 전 교학을 총망라하고 있다. 『화엄경』은 ‘부처란 어떤 존재인가’를 설하는 법신불사상과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는가’를 설하는 보살사상으로 이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전자를 불신론(佛身論) 또는 법신론(法身論)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보살행(菩薩行) 또는 보살도(菩薩道)라고 할 수 있다. 보살도는 중생이 발보리심에 의해 보살이 되고, 보살이 자리(自利)와 이타(利他)의 행을 실

친함으로써 불지(佛智)로 향해가는 도이다.

『화엄경』에서는 제1의 적멸도량회(地上)에서 시작되어, 제2의 보광법당회의 신위(地上), 제3의 도리천궁회의 10주(天上), 제4 야마천궁회의 10행(天上), 제5 도솔천궁회의 10회향(天上), 제6의 타화자재천궁회의 10지(天上), 제7회의 서다원림회(地上)로 내려온다. 마찬가지로 신(信) 즉 10신을 설하는 보광법당회에서는 두 발바닥 밑[兩足相輪下]에서 백억의 광명을 놓아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비추고, 10주를 설하는 도리천궁회와 10행을 설하는 야마천궁회에서는 두 발의 발가락[兩足指]으로부터 백천억의 묘색광명을 놓아 시방의 일체세계를 비추고, 10회향을 설하는 도솔천궁회에서는 두 무릎[兩膝] 사이에서 백천억나유타의 광명을 놓아 시방의 허공법계와 같은 일체세계를 비춘다.⁴²⁾ 그리고 10지를 설하는 타화자재천궁회에서는 이마의 백호상[眉間白毫相]에서 광명을 놓아 시방의 여러 부처님세계를 비추었다고 한다.⁴³⁾

이처럼 『화엄경』은 전체가 붓다의 깨침의 세계와 거기에 도달하는 수행 과정이 주도면밀하게 조직되어 있다. 이 때문에 화엄의 수행구조와 십바라밀 실천은 중생이 보살이 되고 보살이 불지를 향해가는 것이므로 대승의 재가불자들의 신행 체계와 신행 이론이 될 수 있다. 화엄의 보살도는 십신-십주(해)-십행-십회향-십지-등각-묘각으로 전개된다. 그런데 중국의 화엄가 법장은 믿음에는 위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보살의 수행계위에서 신위(信位)만은 10

42) 佛馱跋陀羅 역, 「菩薩雲集讚佛品」, 『大方廣佛華嚴經』(『대정장』 제9책, p.485 중).

43) 佛馱跋陀羅 역, 「十地品」, 위의 경, 위의 책, p.544상).

단계로 나누어 설하지 않는다.⁴⁴⁾ 이 때문에 그는 『탐현기』에서 보살도의 구조를 10신위로부터 10주-10행-10회향-10지위와 등각-묘각의 위를 합쳐 52위로 파악하고 있다.

선재(善財)동자가 탐문하는 53선지식 중에서 제1 문수사리보살은 10신위의 선지식이 되고, 제2 공덕운비구로부터 제11 미다라니동녀까지는 10주위의 선지식이고, 제12 선현비구로부터 제21 수순일체중생출가의외도까지는 10행위의 선지식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22 청련화향장자에서 제31 안주도량지신까지는 10회향위의 선지식이며, 제32 파사파타야천에서부터 제41 구이부인까지는 10지위의 선지식이 되고, 제42 마야부인과 제53 미륵보살은 등각위의 선지식이 되고, 제55 보현보살은 묘각위의 선지식이라고 한다.⁴⁵⁾

그런데 법장은 7처 8회의 설법 중 적멸도량회는 신(信)을, 그 다음의 5회는 해(解)를, 그 다음의 보광법당중회는 행(行)을, 마지막 서다원림회는 증(證)을 설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⁴⁶⁾ 그의 해명에 의하면 『화엄경』은 중생이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을 설한 것이며 그 과정은 마음과 이해 및 실천행과 깨달음의 단계로 되어 있다.⁴⁷⁾ 여기서 보살의 구체적인 실천행은 신해행증의 네 단계 중 ‘행’(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보살의 수행계위는 신만성불(信滿成佛) 즉 깨끗한 믿음[淨信]에 의해 여래가 계신 곳에 다다를 수 있다고 시설되어 있다.

44) 法藏, 『華嚴經探玄記』 권18(『대정장』 제35책, p.451중).

45) 法藏, 위의 글, 위의 책, p.450중.

46) 法藏, 앞의 글, 앞의 책, p.125중.

47) 李道業, 『華嚴經思想研究』(민족사, 1998), p.139.

하지만 법장이 역설하는 것처럼 신(信)에는 계위가 있을 수 없으므로 10신행을 제외하면 보살의 수행계위는 42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등각과 묘각의 단계도 이미 부처의 지위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살행은 10주로부터 10지까지의 40위의 행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들 40위의 각 위마다에는 보살이 행해야 할 실천행이 10종 이상씩 설해지고 있어 사실상 보살의 실천행은 모두 400가지 이상 시설되어 있다.

이들 42위는 각기 개별적이면서도 총체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즉 십신에서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를 거쳐 등각과 묘각에 이르게 된다.

1) 십신(十信)

① 믿음은 보리심을 내게 한다. ② 믿음은 모든 진리의 근본이며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③ 믿음은 모든 선법을 길러준다. ④ 믿음은 모든 의혹을 없애주고 무상도를 이루게 한다. ⑤ 믿음은 마음이 견고해지고 교만심이 사라지며 공손하게 한다. ⑥ 믿음은 보배 중의 보배로서 청정한 손이 되어 모든 행을 섭수한다. ⑦ 믿음은 모든 장애와 팔난의 어려움이 없어진다. ⑧ 믿음은 모든 마구니 경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무상의 해탈도를 이룰 수 있다. ⑨ 믿음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미묘하고 깊은 진리를 알 수 있다. ⑩ 믿음은 뛰어난 모든 선을 이룰 수 있고 마침내 부처님 곁에 갈 수 있다.⁴⁸⁾

48) 佛馱跋陀羅 역, 『大方廣佛華嚴經』(『대정장』 제9책, p.433상중).

2) 십주(十住/解)

- ①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할 것 ② 모든 보살들을 찬탄할 것 ③ 중생들의 마음을 잘 지켜 보호할 것 ④ 선지식을 가까이 모시고 배울 것 ⑤ 불퇴법을 항상 찬탄할 것 ⑥ 부처님의 공덕을 닦을 것 ⑦ 부처님 앞에 태어나기를 발원하고 찬양할 것 ⑧ 정적(靜寂)삼매를 닦아 익힐 것 ⑨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⑩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귀의처를 만들어 줄 것⁴⁹⁾

3) 십행(十行)

- ① 환희행 ② 요익행 ③ 무에한행 ④ 무진행 ⑤ 이치란행 ⑥ 선현행 ⑦ 선착행 ⑧ 존중행 ⑨ 선법행 ⑩ 진실행⁵⁰⁾

4) 십회향(十廻向)

- ① 구호일체중생이중생상회향 ② 불귀회향 ③ 등일체불회향 ④ 지일체처회향 ⑤ 무진공덕장회향 ⑥ 수순평등선근회향 ⑦ 수순등관일체중생회향 ⑧ 여상회향 ⑨ 무박무착해탈회향 ⑩ 법계무량회향⁵¹⁾

5) 십지(十地)

- ① 환희지 ② 이구지 ③ 발광지(명지) ④焰혜지(염지) ⑤ 난승지

49) 佛馱跋陀羅 역, 위의 경, 위의 책, p.444하~445상).

50) 佛馱跋陀羅 역, 앞의 경, 앞의 책, p.466중하).

51) 佛馱跋陀羅 역, 앞의 경, 앞의 책, p.488중하).

⑥ 현전지 ⑦ 원행지 ⑧ 부동지 ⑨ 선혜지 ⑩ 법운지⁵²⁾

6) 등각(等覺)

보살이 수행하는 지위 점차 중 제51위의 최고 극위로서 그 지혜가 만덕 원만이 붓다와 대개 같다는 의미이다. 이 보살의 각은 붓다의 묘각까지 1등급이 있으므로 등각이라 한다.

7) 묘각(妙覺)

보살이 수행하는 지위 점차 중 제52위의 마지막 지위이며 유식의 마지막 지위인 제41위이다. 등각위에 있는 보살이 다시 1품의 무명을 끊고 이 지위에 들어간다.

이처럼 보살은 발심을 통해 상구보리를 실천하는 존재이자 서원을 통해 하화중생을 실천하는 존재이다. 재가보살 역시 10선계를 닦아서 계바라밀로부터 나아가는 수행자이다. 그는 십선계가 대승 불교도가 행하는 육바라밀 중 계바라밀의 내용으로 새롭게 자리매김 되자 계바라밀은 보살이 받아 지녀야 할 계로서 십지 보살위 중에서 초지인 환희지에서 발심을 하고 올바른 신심을 확립한 뒤, 제이지인 이구지에서 계를 받고 수행을 하게 된다.

대승불교의 수행위인 진리에 대한 확신-이해-수행-체증을 통해 보살도를 완성해 간다. 해서 보살은 부처로 나아가기도 하고 중생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이 행은 10주-10행-십회향-10지에 배

52) 佛馱跋陀羅 역, 앞의 경, 앞의 책, p.542하~543상).

대하면 10바라밀과 대응한다.⁵³⁾

	10住	10行	10廻向	10地	10波羅蜜
1	初發心住	歡喜行	救護一切衆生離衆生相廻向	歡喜地 → 檀波羅蜜	
2	治地住	饒益行	不壞廻向	離垢地 → 尸波羅蜜	
3	修行住	無恚恨行	等一切佛廻向	明地 → 羼提波羅蜜	
4	生貴住	無盡行	至一切佛廻向	焰地 → 毘梨耶波羅蜜	
5	方便具足住	離癡亂行	無盡功德藏廻向	難勝地 → 禪波羅蜜	
6	正心住	善現行	隨順平等善根廻向	現前地 → 般若波羅蜜	
7	不退轉住	無著行	隨順等觀一切衆生廻向	遠行地 → 方便波羅蜜	
8	童眞住	尊重行	如相廻向	不動地 → 願波羅蜜	
9	法王子住	善法行	無縛無著解脫廻向	善慧地 → 力波羅蜜	
10	灌頂住	眞實行	法界無量廻向	法雲地 → 智波羅蜜	

이 도표는 재가보살이 발심을 통해 어디로 나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초심 즉 초발심은 초발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의 약칭이며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먼저 첫 단계의 제1 초발심주는 수행위의 출발이 된다. 초심은 초발심주에 의거한 것으로 환희행이자 구호일체중생이 중생상회향에 의거하며 환희지로부터 단바라밀을 불러 일으킨다. 이렇게 해서 제10의 관정주는 두 번째 단계 제1의 환희행에서 제10의 진실행으로 나아가며, 세 번째 단계 제1의 구호일체중생이 중생상회향에서 제10의 법계무량회향으로 나아가며, 네 번째 단계 제1의 환희지로부터 제10의 범운지로 나아간다. 특히 네 번째 단계 제1의 환희지는 단(보시)바라밀에 상응하며 제10의 범운지는 지바라밀을 상응한다. 이처럼 초발심주는 환희행-구호일체중생이 중생상회향-환희지와 같은 다음 단계의 제1 위계로 이어지며 유기적인

53) 法藏, 『華嚴經探玄記』 권16(『대정장』 제35책, p.373중).

수행체계로 나아간다.

따라서 10주와 10행과 10회향과 10지에 대응하는 육바라밀 혹은 십바라밀은 『화엄』이 진정 재가보살이 궁구해야할 덕목이자 계율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 십바라밀은 곧 재가자의 신행 방향과 내용으로 연결된다.

V. 대승경전에서 재가자의 신행 방향과 신행 내용

대승의 재가보살은 보살의 지위를 넘어 불격으로 승화되고 있다. 『유마경』에서는 유마거사의 범력이 사리불, 목건련, 가섭, 수보리, 부루나, 아나율 등과 같은 10 제자들보다 뛰어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 여러 보살들보다 더 뛰어난 위격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는 비록 재가자지만 출가자의 청정한 계행을 받들어 행하고 있었고, 비록 세속에 살지만 삼계에 집착하지 않았으며, 처자가 있지만 항상 범행을 닦았고, 여러 대중들과 함께 하며 이롭게 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⁵⁴⁾

유마는 세속생활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구현하는 인격체로서 세속적 진실과 초월적 진실을 통일[不二]하여 그 생명력으로 발휘해내고 있다. 유마의 세간과 출세간을 일치화하는 근본원인은 반야와

54) 鳩摩羅什 譯, 「方便品」, 『維摩詰所說經』 권1(『대정장』 제14책, p.539상).

방편의 동시 작용이며 또한 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⁵⁵⁾ 그는 「제자 품」 중에서 재가와 출가의 둘이 아님을 나타내는 설명에서도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출가라고 역설하고 있다.

“여러 장자의 아들들이 말하였습니다. ‘거사시여, 저희가 들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출가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유마힐이 말하였다. ‘그렇다. 그대들이 곧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발하면 이것이 곧 출가며, 이것이 곧 계를 구족한 것이니라.’”⁵⁶⁾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발하는 것 즉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불지혜를 구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신앙과 수행의 본질이다. 발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 즉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재가신자도 성불할 수 있다. 이처럼 유마는 육신의 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출가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느냐 일으키지 않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경전은 사원생활과 세속생활의 경계를 극복하고 있으며 소승 불교가 가정을 감옥으로 보는 편견을 극복하여 현실세간의 전개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중생이 성불하는 관건은 보리심에 있

55) 박소령, 「대승 재가불자의 위상」, 《문학 사학 철학》 제40·41호, 2015년 봄·여름, p.116.

56) 鳩摩羅什 譯, 「弟子品」, 앞의 경, p.541하.

지 출가와 재자로 경중을 따질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⁵⁷⁾ 이처럼 유마는 재가와 출가의 구분을 넘어서서 재가불자의 신행 체계와 신행 이론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후 유마는 재가불교와 거사불교의 전형으로서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으며 오늘날에도 재가불자의 역할모델로 거듭 나고 있다.

『승만경』의 주인공인 승만 부인은 붓다와의 대화를 통하여 수기를 받았다. 이 경전은 현실의 세속생활을 영위하는 재가자도 성불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주고 있으며 불교를 어떻게 믿고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승만부인은 붓다에게 열 가지 크게 받은 수계[十大受]와 세 가지 큰 발원[三大願]을 세운 뒤에 다시 정법을 설하는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1) 나는 오늘부터 보리를 이룰 때까지 받은 계율에 대하여 범할 생각을 내지 않겠습니다.

2) 나는 오늘부터 보리를 이룰 때까지 여러 어른들에 대하여 거만한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3) 나는 오늘부터 보리를 이룰 때까지 여러 중생들에 대하여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4) 나는 오늘부터 보리를 이룰 때까지 다른 이의 잘 생긴 신색(身色)이나 아름다운 기구(器具)에 대하여 시기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5) 나는 오늘부터 보리를 이룰 때까지 내외법(내외법)에 대하여 아끼는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6) 나는 오늘부터 보리를 이룰 때까지 제 몸을 위하여서는 재물을

57) 潘桂明, 『中國居士佛教史』 상(북경: 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00), pp.30~31.

저축하지 않을 것이며, 무릇 받은 것이 있으면 모두 가난하고 곤궁한 중생들을 위하여 구제하겠습니다.

7) 나는 오늘부터 보리를 이룰 때까지 제 몸을 위하여서는 사섭법(四攝法)을 행하지 않을 것이며, 온갖 중생들을 위하여 애착하지 않는 마음과 만족함이 없는 마음과 거리낌이 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섭수하겠습니다.

8) 나는 오늘부터 보리를 이룰 때까지 만일 고독하여 의지할 데 없거나, 구금을 당하였거나, 병이 나거나, 가지가지 액난과 곤란을 만난 중생들을 보게 되면 잠깐도 그냥 버리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편안케 하기 위하여 의리로 도와주고 그 고층에서 벗어나게 한 두에야 떠나겠습니다.

9) 나는 오늘부터 보리를 이룰 때까지 만일 중생을 붙잡거나 기르거나 하는 여러 가지 나쁜 짓과 모든 계율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되면 끝내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고, 제가 힘을 얻는 때에 여러 곳에서 이런 중생들을 보고는 조복할 것은 조복하고, 섭수할 것은 섭수하겠습니다.

10) 나는 오늘부터 보리를 이룰 때까지 올바른 법을 거두어 지니어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⁵⁸⁾

중국 삼론종의 완성자인 길장은 앞의 10대수 중에서 1)~5)는 섭율의계요, 6)~9)는 섭중생계요, 10)은 섭선법계라고 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승만부인의 보살적 서원이 대승계율과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승만부인은 이들 세 가지 큰 서원을 세우고 다시 자신이 생각하는 정법을 여러 중생을 위한 설법자 혹은 전법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하여 “제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정

58) 求那跋陀羅 譯, 『勝鬘獅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대정장』 제12책, p.217중).

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의 크고 넓은 이치를 말하겠습니다”⁵⁹⁾ 고 다짐하고 있다.

여기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승만부인은 자신의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시여하고자 노력하는 재가 여성의 이상적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그녀가 재가 여성신도의 신분으로 대승의 교의를 강설함으로써 이 경은 이미 대승 재가불교의 특징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경에서 승만부인은 10대수와 3대원을 일원[一願, 攝受正法]으로 귀결시킴으로써 이 일원(一願)이야말로 모든 대승의 근원적 보살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⁶⁰⁾

이처럼 승만부인은 “보살들이 세운 향하의 모래알같이 많은 원은 모두다 하나의 큰 원[一大願] 속에 들어가니 그것은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이 섭수정법은 진실로 큰 원이 됩니다”라고 밝히고 있다.⁶¹⁾ 『승만경』은 성문, 연각, 보살 삼승의 가르침이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진리인 일승(一乘)으로 귀일하며, 또한 중생은 번뇌에 뒤덮여 있지만 그 본성은 청정무구하여 여래와 같은 성품, 즉 여래장(불성)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살펴본 것처럼 대승경전 속의 재가불자인 유마거사는 불이법문을 통해 소승불교의 형식주의를 깨뜨려주고 있으며, 승만부인은 10대수와 3대원을 아우르는 일대원을 통해 일승의 수승함과 중생이 지닌 여래장(일승)의 본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들은 이미 재가

59) 위의 경, 위의 책, p.218상.

60) 박소령, 앞의 글, 앞의 책, p.121.

61) 앞의 경, 앞의 책, p.218상.

와 출가, 소승과 대승의 구분과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동시에 진리와 방편, 남자와 여자 등의 구별에도 걸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숲과 집, 승과 속의 이분을 넘어선 자리에서 대승의 신행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대승의 의미와 가치를 잘 드러내고 있는 이들 경전의 두 주인공들은 재가불자의 신행 이론과 신행 체계를 불이행(不二行)과 일원행(一願行)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VI. 정리와 맺음

붓다는 출가자와 재가자를 상호 보완적 존재이자 상호 조화적 존재로 보았다. 초기불교가 수행의 목표를 자각(自覺)에 둔 반면, 대승불교는 수행의 방향을 교화(覺他)와 각행(覺行) 및 이 둘의 원만히 갖추[窮滿]에 두었다. 그리하여 출가와 재가는 ‘자각’과 ‘각타’와 ‘각행궁만’까지 아우르는 상호 의존의 존재이자 상호 존중의 존재로 자리하였다.

대승불교는 재가중심의 불교로서 출발하였다. 대승불교의 이상적 존재인 보살은 ‘집’ 즉 ‘가’(家)의 출재(出在) 여부에 구애받지 않았다. 초기불교에서는 재가자가 ‘집에 머무르는 것’[在家]은 곧 애욕의 결박을 의미했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재가보살은 이러한 ‘집의 장애’에 대해 잘 알아야한다고 역설하였다. 이것은 집을 떠나라는 것이기보다는 집에 머무를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환란과 장애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대승 경론에서는 집의 장애를 잘 아는 일은 재가보살의 주요 실천 덕목 중 하나로서 강조되어 왔다.

대승경전을 통해 본 재가자의 신행론은 삼귀의, 오계, 팔재계, 십선계를 지키며 사는 것이다. 재가자는 삼귀의, 오계, 팔재계, 십선계를 지키며 살면서 출가자를 외호하기만 하지 않았다. 이들 계 중에서 십선계는 출가보살과 재가보살이 함께 실천해야 할 덕목이다. 재가보살은 10선계를 닦아서 계바라밀로부터 나아가는 수행자이다. 그는 십선계가 대승불교도가 행하는 육바라밀 중 계바라밀의 내용으로 새롭게 자리매김 되었다. 그 결과 계바라밀은 보살이 받아 지녀야 할 계로서 십지 보살위 중에서 초지인 환희지에서 발심을 하고 올바른 신심을 확립한 뒤, 제이지인 이구지에서 계를 받고 수행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승불교는 재가불교를 상징하는 유마거사의 불이법문과 승만부인의 10대수와 3대원을 아우르는 일대원을 통해 일승의 수승함과 중생이 지닌 여래장(일승)의 본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승의 의미와 가치를 잘 드러내고 있는 이들 경전의 두 주인공들은 재가불자의 신행 이론과 신행 체계를 십선계로부터 이어지는 불이행(不二行)과 일원행(一願行)의 구조와 체계로 잘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10신위에서 10주-10행-10회향-10지로 이어지는 수행위에 대응하는 화엄의 10바라밀행은 출가보살의 수행법일 뿐만 아니라 재가보살의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
•

- 『長阿含經』 권2, 「遊行經」(『대정장』 제1책).
『雜阿含經』 제33권(『大正藏』 제2책).
『郁迦羅越問菩薩行經』 「居藏品」(『大正藏』 제12책).
鳩摩羅什 역, 『維摩詰所說經』(『대정장』 제14책).
求那跋陀羅 역, 『勝鬘獅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대정장』 제12책).
『大寶積經』 권82, 「郁迦長者會」(『大正藏』 제11책, p.472중).
龍樹, 『十住大毘婆沙論』 권7, 「知家過患品」(『大正藏』 제26책).
彌勒, 『瑜伽師地論』(『大正藏』 제30책).
佛馱跋陀羅 역, 『大方廣佛華嚴經』 권6(『大正藏』 제9책).
法藏, 『華嚴經探玄記』 권18(『대정장』 제35책).
一然, 「王曆」, 『三國遺事』 제1권.
- 李道業, 『華嚴經思想研究』(민족사, 1998).
潘桂明, 『중국거사불교사』 상(북경: 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00).
조준호, 「초기경전에 나타난 재가자의 위상과 신행생활」,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불교평론》 제14호, 2003년 3월.
허우성, 「재가자의 해탈은 어디에 있는가?」,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불교평론》 제27호, 2006년 9월.
박경준, 「재가자는 출가자에 비해 하열한가」,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불교평론》 제27호, 2006년 9월.
문을식, 「『십주비바사론』에 나타난 재가보살가 출가보살의 계 연구」, 《인도철학》 제25집, 인도철학회, 2008.8.
곽도영, 「초기불교 재가불자의 전법과 역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논문, 2011.

박소령, 「대승불교 재가불자의 수행과 위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논문, 2014년.
_____, 「대승 재가불자의 위상」, 《문학 사학 철학》 제40·41호, 2015년 봄·여름.



Theory of Practice for Laity Buddhist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Mahayana Scripture

Ko, Young-seop

Professor in Department of Buddhist Studies at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looked into the theory, direction, and substances of the theory of practice for laity Buddhists who appear in Mahāyāna scripture. Buddha considered person who renounced secular life to become a monk and laity as mutually complementary and harmonious existences. Early Buddhism took self-realization as the objective of Buddhist asceticism, while Mahāyāna Buddhism considered the edification and practice of the Buddha-way(to attain enlightenment) as the objective pursued through Buddhist asceticism.

Thus, those who renounced secular life to become a monk and laity have become mutually dependent existence encompassing self-realization, guidance of others to awakening, practice of Buddha-way, and respect towards each other.

Mahāyāna Buddhism was launched as laity-centric Buddhism. Bodhisattva, ideal existence of Mahāyāna Buddhism, did not face limitation, depending on whether the person is confined to home or not. Early Buddhism considered that laity staying within the confines of home were bound by love, lust, and passion. However, Mahāyāna Buddhism reiterated that Upāsaka(layman) Bodhisattva needed to be well-acquainted with such disturbances of house.

This implies that one needs to be well-acquainted with all types of hardships and disturbances which can occur during stay at home, rather than meaning departure from home. Mahāyāna Dharma and shastras or treatises emphasized that familiarization of disturbances at home was one of major practice-related virtues of Upāsaka(layman) Bodhisattva.

Theory of Practice, which Mahāyāna scripture indicates that laity should be adhere to, relates to compliance with Samgwiui(threefold refuges, or the threefold guidance), five precepts, eight precepts, and ten venerable deeds system(Sipseongye). Laity did not disregard person who renounced secular life to become a monk while complying with such Samgwiui(threefold refuges, or the threefold guidance), five precepts, eight precepts, and ten venerable deeds system(Sipseongye).

Among those precepts, ten venerable deeds system(Sipseongye) represents the virtue that should be put into practice by Bodhisattva

who renounced secular life and Upāsaka(layman) Bodhisattva altogether. Upāsaka(layman) Bodhisattva refers to the practitioner of Buddha's teaching and precepts who complies with 10 precepts and makes progress from Gye(precept) pāramitā. He positions himself newly through contents of Gye(precept) paramite in connection with the Six Pāramitās(the six perfections or transcendences) put into practice by Mahāyāna Buddhism based on ten venerable deeds system(Sipseongye).

As a result, Gye(precept) paramite, the precept(disciplinary rule) that should be upheld by Bodhisattva, is put into practice by receiving the Gye from Iguji(the land of purity), the second land, after making up his mind at Hwanhiji(the land of joy: the stage of extreme joy) which is the Choji(the first land of extreme joy) in relation to Sipji(ten kinds of wisdom or insight of Theravāda) Bodhisattvas and pulling himself together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Thus, Mahāyāna Buddhism presents the inborn Buddha-nature of all beings in Buddhism, which is the nature of Yeoraejang(Buddha-nature inherent in all beings)(Ilseung: One-vehicle, or the One Buddha-vehicle) in Sattva(living beings) and beautiful & outstanding(殊勝) of Ilseung(One-vehicle) through One-Daewon(great aspiration/vow) encompassing the Three-Daewon(great aspiration/vow), 10 Daesu of Queen Srimala

and Bulibeopmun(Dharma-door or teaching of non-duality) of Householder Vimalakirti which symbolizes Upāsaka(layman) Buddhism.

Therefore, the two main characters who reveal the meaning and value of Mahāyāna well are showing the Buddhist practice theory and Buddhist practice system for Upasaka(layman) based on structure and system of non-practice and One-Wonhaeng(vow and practice) originating from ten venerable deeds system(Sipseongye)

Moreover, the 10 pāramitā Samskara(Volitional or wilful action) of Hwaom, which corresponds to the discipline(practicing the path of enlightenment) originating from 10 Sinwui, 10 Ju, 10 Samskara, Merit-transference-10 Ji, represents not only the method for Bodhisattva who renounced secular life to practice the path to enlightenment but also the method for Upasaka(layman) Bodhisattva to tread the path to enlightenment.

Keywords

출가(Renunciation of secular life), 재가(Upāsaka, layman), 팔재계(Eight precepts), 십선계(ten venerable deeds system, Sipseongye), 유마(Yuma), 불이행(non-dual practicing), 승만(Seungman), 일원행(One-Wonhaeng(vow and practice))